

가금농장 소독 방법

Q. 시가 찾아오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맞아 농장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A. 올해 10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기간이 도래했습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사전 예방을 위해 가금 농장의 차단 방역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는 지난해 가금농장의 차량과 발판 소독 효과를 실험한 데 이어, 올해는 겨울철 권장 소독제를 이용한 차단 방역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장화 등 신발은 축사 안에서 작업을 마치고 나올 때 산화제 계열 소독액에 담가 놓고, 작업 하러 들어갈 때는 소석회 수용액에 3초 이상 담근 뒤 축사 안으로 들어간다.
2. 손 소독제는 축사에 진입하기 전 입구 벽면 등 눈에 쉽게 떨어질 수 있는 곳에 충분한 양을 두고 출입할 때마다 사용하도록 한다.
3. 가금농장에는 유해 세균과 바이러스가 쉽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축사 안팎으로 통하는 곳에 간이 공간(전실)을 설치하는 것도 효율적이다.

※ 본란은 독자분들께 사양, 유통, 질병, 시설 등 전반적인 양계에 관한 질문을 받아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답변해 드리는 코너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메일을 보내주세요.
ch-spirow@hanmail.net(장성영 기자), wg1167@hanmail.net(임설희 기자)